

참배도 없는 무개념 기념식...광주에 상처만 남겼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식 뒤 희생자 묘지 외면하고 유족도 안 만나 묘지에 저격용 총기 배치·무장 경호원들 활보...유족 '트라우마' 호소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기 기념식이 열린 국립5·18묘지에 무장 경호원이 배치돼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가 주최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히려 5·18 유족들에게 상처만 주는 행사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무장 경호원이 기념식장에 등장하고, 정부 대표로 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묘지 참배조차 생략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엄수했다.

이번 행사에는 1997년 5·18 기념식이 정부 주최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현직 대통령·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5·18 유족들은 이날 기념식 이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식이 끝나자, 묘지도 아닌 유영봉안소를 잠시 둘러본 뒤 빠르게 퇴장했다. 역대 기념식에서 정부 대표는 기념식을 마치는대로 5·18민주묘지 일대를 둘러보며 참배를 해 온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부 대표가 5·18 유족인 오월 어머니들을 만나 격려하는 등 모습 또한 올해는 사라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이 권한대행 등 일부 인원이 대표로 헌화·분향했을 뿐, 각계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돌아가며 헌화·분향하는 과정도 생략했다.

기념식장 내 곳곳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군복과 방탄 조끼, 방탄 헬멧 등을 챙겨 입고 총기로 무장한 채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 5·18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도 했다.

군복을 입은 경호원들은 기념식장 전면의 시민군 조각상인 '무장항쟁군상' 인근, 유족 쉼터 발코니 등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기념식장 묘역 뒤편 양 끝에 배치된 저격수들은 묘지 내부 방향으로 각각 저격총 1정씩 총 2정을 드러내 놓고 있었다.

이들은 경호원이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양복 등을 입고 모습을 숨기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군복을 입고 있었다. 더구나 5·18 기념식은 군인을 동원한 국가폭력으로 산화한 5·18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복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제44주년 기념식에서도 경호원은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저격수는 인근 산지나 기념식장 구조물 뒤편 등으로 숨어 있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5·18 유족들은 아무리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참석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사만 치렀을 뿐 유족들과 공감하고 아픔을 달래주려는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도 없고, 유족들과 공감 한 마디 나누지도 않고 서둘러 행사장을 떠나 허탈한 마음까지 들었다"며 "더구나 보란 듯이 군복을 입은 이들이 기념식장을 돌아다니고 있어 5·18 유족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또한 "기념식장에서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쳐들어간 군인들과 똑같은 복장을 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며 "보훈부는 5·18이 왜 발생했는지,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행사를 꾸려 5·18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상처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기념식 날이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선 후보들까지 한 데 모여 있어 유사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경호 차원에서 무장 경호원이 투입된 것"이라며 "보훈부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경호 인력은 경호 수칙에 따라 배치되므로 별도로 혐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야제, 전국서 모인 5만여 민주 시민 5·18 추모하고 민주주의 축제 즐겼다

김형석·이은미·쫄블밴드 무대에 기념식 윤상원·문재학 열사 조영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18 전야제와 5·18 기념식 등이 5월 정신을 잇는 민주주의 축제로 거듭났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5·18을 직접 배우고 싶다는 광주를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5·18을 다룬 책 '소년이 온다'의 저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을 거치면서 "5·18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져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공감대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 전야제를 개최했다.

전야제에는 17일 하루 동안에만 주최측 추산 5만여명의 방문객이 운집했다.

전야제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전 11시께 시민참여 거리부스, 오월연극제, 민주주의 대합창, 민주미술 전시 등 '시민난장'이 열자 마자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오후 4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남로로 햇불행진했던 민족민주화쟁취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행진에는 지난해 참가자(50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1만 6000여명이 동참했다.

작곡가 김형석, 가수 이은미, 백금열과 쫄블밴드 등도 무대에 올라 광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 출신인 김 작곡가는 "5·18 당시 부모님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주던 것, TV에서 광주 사람들을 폭도로 묘사하던 것이 기억난다"며 "광주는 이제 고립된 도시가 아니다. 이제는 아픔과 비극을 넘어서 치유와 평화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도시가 되었다"고 말해 관객의 환호를 받았다.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정부기념식에는 '45년 전의 광주가 과거와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어주고 있다'는 메시지가 중심이 됐다.

이날 여는 공연에서는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인 문재학 열사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조영됐다. 영상은 오늘을 사는 시민들이 소설과 음악(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되살아난 시민군, 민주유공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기념 영상 '내일을 쓰다' 또한 518번 버스를 타고 노선을 따라가며 시민들로부터 5·18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듣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영상에서 광주 시민들은 "45년이 지났어도 우리만의 의미로 오월의 기억을 계속 써내려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관

2025

무등올림

산과

24일(토)

광주국악방송 공동기획 개막공연 <꽃바람 따라>

토요상설공연 문명자 무형유산 예능보유자<가야금 다섯마당>

25일(일)

연계행사 <제20회 빛고을 청소년 춤축제>

광주&일본 북해도 교류공연<산과 바다의 소리>

문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T.062-670-8511

http://www.gtcc.or.kr/

바다가

만나는

곳

05. 24.토~25.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협력

광주국악방송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대한무용협회 광주광역시지회

동영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우계미술관

의재미술관